

조선대병원의 스마트 도약... AI로 여는 미래의료

AI 도입 현장 '더 빠르고 정확하게'
24시간 작동... 골든타임 지킨다
스마트 환경 구축해 미래의료 선도

조선대병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병원 곳곳에 AI를 접목한 다양한 진단 보조 솔루션과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며, 진료의 정확도와 속도는 물론 환자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는 것이다.

1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AI 기반 흉부·폐 CT 자동영상분석 솔루션 '루카스(LuCAS)'는 CT 영상에서 폐 결절을 자동 검출하고 정량화해 진단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로 촬영 직후 분석을 시작해 판독 초안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기시간을 줄이고 있다.

응급실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AI 뇌 영상 분석 기술이 활용된다. 비조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웅, 선현주 교수가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CT 판독 보조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영 CT 기반 AI 솔루션이 뇌출혈 여부와 뇌경색을 빠르게 판별해 '골든타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AI 관류 영상 기술로 재관류 치료 가능 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환자에게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

한다. MRI 영역에서도 AI는 검사 혁신을 이끌고 있다. 딥러닝 기반 MRI 가속화 솔루션 도입으로 검사 시간이 20~30분 단축됐고, 현재는 MRI 장비에 내장된 AI 기능을 활용해 영상 품질을 높이며 검사 효율

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또 최근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3차원 자동유방조음파(invenia ABUS 2.0)'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전통식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하며, AI가 3차원의 입체 유방 초음파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부위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이를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진단과 판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돕는다.

김진호 조선대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CT, MRI, 뇌졸중 진단, 생체신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진단의 정확도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까지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선대병원은 'K-Health 국민 의료 AI 서비스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병원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스마트 의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광역시 공약인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과도 맞물려, 지역 기반의 인공지능 산업과 미래의료 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심정지 예측, 척추질환 진단, 골연령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고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조기 대응을 가능케 한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4월30일 '2025 의료데이터 연구활성화 방안 및 협력모델 공유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보건 의료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 전략과 활성화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및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화순전남대병원, 176억 규모 '디지털 의료 플랫폼' 선정

K-HOPE 프로젝트...암 허브 도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2025년도 핵심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및 개발'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76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병원은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Experimental trials)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반 정밀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티아이즈, ㈜제이에스링크, ㈜씨엔알리서치 등 디지털 바이오 전문 기업들도 산학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실용화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국가 전략 자산인 인체자원은행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환자별 맞춤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15년간 4만여 명의 암 환자 검체, 유전자 정보, 치료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암이라도 유전자나 면역 상태에 따라 환자별 최적 치료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AI 등 최신 디지털 융합기술을 접목해 임상시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공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가상대조군 생성, 조직교차반응(TCR) 시험 표준화 프로토콜 개발 등을 통해 기존 임상시험 대비 9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임상시험센터와 가상 임상 프로토콜 플랫폼도 구축해 임상시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총괄 책임연구자인 조상희 임상시험센터장은 "디지털 바이오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 이번 사업은, 의료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은 "미래의료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면역백신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3기 선정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화순전남대병원이 미래 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중추 기관이자 아시아 암 허브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다"며 "이번 성과는 전라남도 와 화순군의 전폭적 지원 덕분이며, 지·산·학·병·연 협력의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병원, 'AI, 의료 현장에 들어오다' 심포지엄

4일 낮12시 의생명연구지원센터서

전남대학교병원은 오는 4일 낮 12시부터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AI, 의료 현장에 들어오다'라는 주제로 제6회 의료정보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의료정보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영석 센터장의 개회사와 정진 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카카오톡케어 황희 대표가 'AI & Data in Digital Healthcare'를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첫 번째 세션은 '최신 의료AI 동향'을 주제로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Medical Domain에서 LLM의 활용과 전망(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육현 교수) △생성형 AI 의료기기 관련 한국규제: 인공지능기본법과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충근 교수) △멀티모달 AI 기반 흉부 X-ray 판독

문 초안 생성 솔루션 개발 사례(Deepnoid 현지훈 소장) 등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의료AI 병원 적용사례'를 주제로 화순전남대병원 강호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연세의료원 Y-KNOT 프로젝트: LLM을 이용한 의무기록 작성(파이디지탈헬스케어 이소연 이사) △현장 수요 중심의 의료 인공지능/메타버스 사례(경북대병원 나승대 교수) △서울아산병원 BPA 도입 사례(서울아산병원 이원구 팀장) 등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세 번째 세션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을 주제로 주성필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브릿지 프로젝트: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연계활용(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정집민 단장) △의료정보센터 의료 AI개발 추진현황(전남대병원 서제원 파트장) △AI기반 지역완결형스마트응급환자분류·이송시스템 개발(전남대병원 김동기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병하 기자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